

국내 최고 남북관계 전문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과제 논의

입력 2023.07.27 17:12 업데이트 2023.07.27 17:29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는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34차 남북 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분단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번영을 위해 국내 최고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장이다. 그동안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남북관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왔다.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행사는 박영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과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개회사, 김홍석(육군소장) 국방대 총장 축사, 1·2세션으로 구성됐다.

조운영 중앙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1세션 '정전협정 70주년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미래 비전'에서는 손경호·안경모 국방대 교수와 도경옥 총남대 교수가 정전체제 70년의 의미와 평가, 정전체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우리의 과제, 정전협정의 법적 쟁점과 우리의 과제를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는 황지한 서울시립대 교수,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세션 '한미동맹 70주년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국제협력'에서는 박영준 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제자로는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재천 서강대 교수가 나섰다.

이들은 한미동맹 70년의 의미와 성과, 한반도 위기관리와 한미동맹의 과제, 국제정치 질서의 재편과 한미동맹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유상범 국방대 교수, 박병광 국가안전보장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채무 기자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